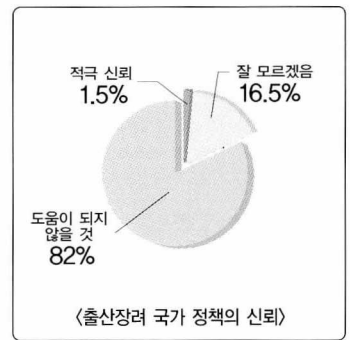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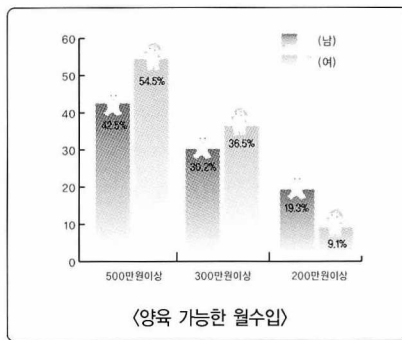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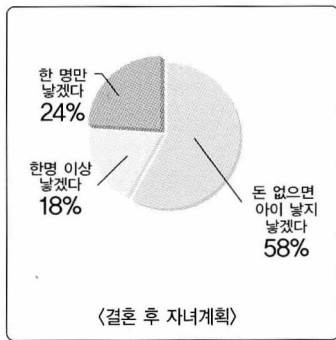


통계로 보는 세상 이야기 ■■■


저출산, 우리나라의 미래

노령인구가 전 인구의 7%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라 하고, 14%이면 고령사회, 20%면 초고령사회라 한다.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대로의 추세라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. 미국과 프랑스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기간은 각각 88년, 155년인데 비해 그야말로 초스피드가 아닐 수 없다. 미국의 비영리 인구통계연구소인 인구조사회국(PRB)에서 발표한 '2006 세계인구통계표'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.1명으로 대만과 함께 최저를 기록했다. 다음은 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후 자녀계획을 묻는 설문결과이다.



□ 결혼 후의 자녀계획은?(20~30대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 총 542명, 남 : 284명, 여 : 258명)

한 결혼정보 회사에서 결혼적령기인 20~30대 미혼남녀 542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의 자녀계획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총 58%의 응답자가 '돈 없으면 아이 낳지 않겠다' 라고 응답했으며, 이어 '한 명만 낳겠다' (24%), '한명 이상 낳겠다' (18%) 순으로 나타났다. '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아이 양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?' 란 질문에는 남녀 모두 '월수입 500만원이상' (남 42.5% 여 54.5%)은 돼야 아이 양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했다. 이어 남성은 '300만원 이상은 돼야한다' (38.2%), '200만원이상 돼야한다' (19.3%)의 순으로 답했고, 여성도 남성과 같은 순으로 '300만원 이상 돼야한다' (36.4%), '200이상의 수입' (9.1%) 등으로 응답했다. 또한 '아이를 낳으면

유학을 보낼 것인가' 란 질문에는 남성의 경우 '꼭 보내겠다' (48.4%), '한국에서 교육 시키겠다' (31.2%), '여건이 되면 보내겠다' (20.4%)로 절반에 가까운 남성들이 자녀들을 유학보내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여성의 경우는 '꼭 보내겠다' (61.6%), '한국에서 교육 시키겠다' (24.2%), '여건이 되면 보내겠다' (14.2%)로 대답해 남녀 모두 자녀들의 유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'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에 대한 신뢰' 를 묻는 질문에는 총 82%의 응답자가 '도움이 되지 않을 것' 이라고 답하고, 뒤를 이어 '잘 모르겠다' (16.5%), '적극 신뢰한다' (1.5%)로 대답해 남녀 모두 정부의 출산장려 지원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출처 : 노블린